

CONTEXT-AWARE COMPANION AGENT

말하지 않아도 알아봐 주는 Agent

computer를 넘어 사람에 대한 Context Awareness

데모 에이전트의 4단계 라이프사이클

👁 01 같이 보다가

사용자가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선 보정이 자동으로 진행되고,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보는 화면을 함께 본다.

👁 02 관심을 알아채고

사용자의 시선이 한곳에 머물면 에이전트는 그 장면이 무엇인지 인식하고, 그때의 표정(웃음, 놀람, 찡그림)을 함께 기록한다.

💬 03 스스로 물어본 후

사용자가 무언가를 유심히 보고 있으면 에이전트가 먼저 말을 건다. 에이전트가 말하는 동안에는 영상 소리를 줄이고, 사용자가 말을 시작하면 멈춘다.

🔍 04 찾아보고 알려준다

에이전트는 영상 정보와 자막, 웹 검색을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 제시하거나, 화면을 바꾼다.

Awareness Stack

👁 **시선** EyeTheia가 MediaPipe 얼굴 메시를 바탕으로 iTracker ONNX 모델을 WebGPU에서 실행해 시선 추정

👋 **표정·몸짓** 카메라 하나로 웃음·놀람·찡그림 표정, 고개 끄덕임과 도리질, 다섯 가지 손 제스처 인식

🧠 **기억** 시선이 옮겨 갈 때마다 장면과 표정을 시간순으로 기록하고, 대화할 때 함께 참조

🎤 **음성** Silero VAD로 발화를 감지해 Qwen3-ASR로 받아쓰고, Claude Haiku 5.5의 스트리밍 답변을 세라 TTS로 음성 합성

🔍 **에이전트** Claude Sonnet 5.5가 pi-agent-core 위에서 웹·뉴스 검색, 유튜브 검색, 다나와 최저가 검색, 화면 다시 보기 도구 사용

“

부러운 눈빛으로 잠깐 바라봤던 걸
기억했다가 꺼내 주는 연인.
그때의 ‘내 마음을 알아줬다’는 감정.

Nunchi는 이 감정을 에이전트로 만듭니다.

데모는 웹으로, 제품은 앱으로

데모 · 웹

데모는 별도 설치 없이 링크만 열면 시연할 수 있도록 웹으로 만들었다.



제품 · 앱

앱으로 배포하면 LLM API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가 로컬에 남는다.

원한다면 로컬 모델을 사용해 어떤 데이터도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다.

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이는 제품으로 향한다.

지금까지는 에이전트의 발전은 사람이 컴퓨터를 어떻게 쓰는지에 집중해왔다. 이런 방식의 최신 전장은 작업 기록을 읽을 수 있게 하는 Context Awareness라고 불린다.

Context Awareness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콘텐츠로만 소비되던 아이트래킹을 접목하니,

감정을 건드리는 에이전트가 태어났다.

“

에이전트가 편리함을 넘어 감동까지 준다면?

감동은 디테일에서 나오고,
디테일은 사람 본인에게서 나온다.

확장 가능성

시선 보정

데이터 증강만으로도 보정을 줄이고 다양한 위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이 가능하다.

표정과 기분

지금은 웃음, 놀람, 찡그림만 인식하지만, 화면 기록과 표정을 시간축으로 연결하여 감정의 context도 쌓을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하다.

AI 글라스

플랫폼이 AI 글라스로 옮겨 가더라도 대응할 수 있으며, 더 적합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. 글라스의 카메라에 찍히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사용자가 보는 것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.

광고와의 궁합

사용자가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광고 모델과 궁합이 좋다.